

Amy Zhang, *Circular Ecologies: Environmentalism and Waste Politics in Urba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4). 216 pp.

배상희†

도시에 대한 권리, 쓰레기에 대한 권리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중국은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된다. 중국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강압적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¹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광저우시의 폐기물 관리 체계 또한 중국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우는 환경 관리 정책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 도시 폐기물은 1990년대부터 보건·위생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마주한 다양한 환경위기를 대표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책 입안자들과 공학자들은 순환적 자원 관리 및 도시 폐기물 관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순환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적합한 기술을 개발해 활용한다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무한히 재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기술관료주의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순환경제는 광저우시를 비롯한 중국의

†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shbae25@snu.ac.kr

¹ 중국의 권위주의적 환경주의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 Yifei Li and Judith Shapiro, *China Goes Green: Coercive Environmentalism for a Troubled Planet* (Cambridge: Polity Press, 2020); Jesse Rodenbiker, *Ecological States: Politics of Science and Nature in Urbanizing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3) 참조.

대도시들을 지속가능한 “세계도시”이자 “생태도시”로서 재설계하는 국가사업의 핵심 축으로서, 점차 한 도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녹색 성장에 대한 비전을 추동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 에이미 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광저우시 및 그 근교의 폐기물 관리 실행을 민족지적으로 분석하여 기술 유토피아주의적인 수사 아래 감춰진 순환경제의 면면을 드러내고, 그 한계와 가능성을 다채롭게 그려내고자 했다.

광저우시는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따라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순환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도시 사업은 당연하게도 백지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저자는 먼저 순환경제 계획 도입 이전 폐기물 관리의 간략한 역사를 서술하며 오늘날 국가 계획이 기반을 둔 불안정한 토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42-48). 중국은 마오쩌둥 시기 세계 최초로 국가가 운영하는 대규모의 재활용 시스템을 수립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도시 곳곳에 폐기물 수거 센터를 설치하고, 수거된 물질을 도시 밖의 보다 큰 중간 집하장으로 보내어 분류한 다음, 회수한 자원은 시장으로 되먹이고, 남은 쓰레기는 최종 처분장으로 운반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졌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폐기물 수거 센터가 민영화되는 등 이전에 수립된 중앙집중적 재활용 체계가 시장주의적 체계로 개편되었다. 잇따른 토지제도 개혁과 광저우와 같은 해안 도시의 급속한 산업화는 중국 내륙의 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도록 촉발했고, 이들 이주민들이 고물 수집이나 위생·청소 노동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공식적이고 비국가적인 부문은 더욱 활성화되어 공식적인 폐기물 관리 실행을 대체해 나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광저우의 생태도시로의 전환으로 인해 도시 하층민들의 거주지가 철거되고 상업지구로 재편되면서 비공식 부문 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의 입지는 좁아져만 갔다.

저자는 이러한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도시민들의 자리에서 분석을 시작한다. 그는 기존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가 설립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균열들에 주목해 그 틈에서 발생하는 협상의 공간, 투쟁의 언어, 그리고 대안적 상상을 포착해낸다. 책의 각 장은 순환 생태계 속에서 도시 폐기물 관리 및 제반 문제들과 씨름하거나 상호 경쟁하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1장과 4장에서는 폐기물에서 가치를 추출하려는 고물수집상이나 노동자들의 행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장과 3장, 5장에서는 폐기물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도시 주민들의 행위

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구분해 볼 수 있다.

1장에서는 광저우시의 고물수집상들을 따라가며 공식적으로 천명된 순환 경제가 사실은 비공식적 노동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고물상들은 재활용 시장에 공급할 폐기물을 상품으로 만들며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활용 자원을 잘못 분류하거나, 질 낮은 상품을 질 높은 상품 사이에 끼워 넣어 묶음을 구성하는 등 “조악화(adulteration)” 전략을 활용한다. 이들의 실행은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깔끔하게 분류하고 순화하여 가치를 생산하려는 공식적인 순환경제 체제와 대립하는 듯 보이면서도, 버려지는 것들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의 목적에 부응한다. 4장은 빗장주거단지(gated community)의 주민들이 재활용 운동에 뛰어들면서 위생·청소 노동자들의 역할이 지워진 현상을 분석한다. 저자가 관찰한 빗장주거단지에서의 폐기물은 교육받은 주민들에 의해 깔끔하게 분류된 뒤 자동으로 순환경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위생·청소 노동자들의 육체적 노동을 통해 문자 그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었다(120). 무겁고 지저분한 폐기물을 온몸을 이용해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실행은 순환경제 개념이 암시하는 매끄러운 자원의 흐름이라는 이미지가 허상임을 폭로한다.

2장과 3장, 5장에서 저자는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폐열 에너지를 회수해 활용하는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시설 건설에 저항하는 대중들의 반대운동이 보여주는 정치적 전략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광저우시 근교 작은 마을 메이촌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 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설의 안전성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모니터링하여 관료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다(2장). 또 광저우 시내 판위구와 화두구에 거주하는 중산층 자택 소유자들은 소각 기술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기술적 고려에 초점을 맞춰 소각장 반대 논리를 마련하여 권위주의 국가의 언어를 전유했다. 특히 이들은 권리나 분배라는 용어 대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이성적 토론과 과학적 검토라는 틀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웠다. 이는 소각장 반대운동이 님비(NIMBY) 현상이라는 혐의에 맞서 소각장이 일으킬 대기오염의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환경문제라고 호소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집단행동을 위한 보다 넓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이었다(3장). 이러한 소각장 반대운동을 계기로 환경운동

가로 거둬낸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 만든 에코-엔자임을 합성세제, 샴푸 등 가정 청소용품의 대체재로 사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풀뿌리 환경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5장).

국가 주도의 위계적 폐기물 관리 체제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행위자들이 구사하는 정치적 전략의 특징을 분석해 냄으로써, 저자는 중국 정부가 설파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매끄럽게 연결된 순환경제가 실은 서로 경합하고 네트워크에 저항하기도 하는 이질적인 행위자들로 이뤄진 생태계임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대중의 활동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환경 속에서도 폐기물이나 그것을 처리하는 기술 등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우려의 대상물(object of concern)”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집합체(collectives)”가 얼마든지 창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3). 중국의 환경주의를 분석한 이전의 연구들이 억압적인 국가 권력의 영향력을 강조하느라 그 결정력을 과대평가해버리고 너무 단순한 그림을 그려버린 것은 아닐까? 이 책은 국가가 선전하는 환경주의 아래에서 쉽게 간과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가능성을 재발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저자의 분석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장에서 등장하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도시-농촌, 노동자-소비자 등의 불균형적 관계 속에서 조우했을 때 어떤 정치적 가능성의 공간이 열리는지에 대한 관찰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산층 거주 구역에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시작했을 때 폐자원을 회수할 독점적 권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위생·청소 노동자의 불만이 잠깐 언급되지만, 그 외에는 이들이 같은 시공간을 점유하며 폐기물이라는 “우려의 대상”을 매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위생·청소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폐기물에 대한 권리는 빗장주거단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와 연결되지 못한다. 다양한 행위자들은 폐기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저마다 고유한 쓰레기 문제를 경유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1장과 4장에서 부각된 불안정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2장과 3장, 5장에서 전면화되는 중산층 주민들의 목소리 사이의 접점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권위주의 국가 대 시민이라는 구도 속에서 시민들이 행위성을 지님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 각각의 실행이 만났을 때 어긋나거나 마찰하거나 충돌하

는 지점들, 연결되고 연합되는 지점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했다면, 더 다양한 집합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자는 지식정치에 관한 STS 이론을 포함해 다양한 분과의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현장 연구 사례들을 엮어내고 있다. 덕분에 도시학의 주제에 STS의 자원을 적용해 보려는 과학학 연구자들은 이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사학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은 저자가 다루는 2010년대 중국에서의 소각장 입지 반대 운동이 1990년대 서울에서의 소각장 반대운동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도한 소각장 반대운동은 과학주의적인 믿음 체계와 언어가 바탕이 되었으며, 님비 현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특정 지역의 문제를 모두의 환경문제로 확장하는 담론 전략을 기용했다. 또한, 중산층 자택 소유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대정부 항의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활용 실험과 같은 풀뿌리 운동에도 나섰다. 이 점들은 모두 에이미 장이 지적한 중국에서의 소각장 반대 운동의 특징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단순히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을 피해가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환경운동의 특징이라고만 볼 수 없지 않을까? 급속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거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식정치의 뿌리를 역사학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중국, 그리고 한국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보여주는 독특한 풍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인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학자의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